

뉴딜에 26조 통큰 투자... 신한금융 미래는 'D·G·B'

(디지털·그린·바이오)

‘신한 네오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한국판 뉴딜, 더 큰 도약의 기회”
혁신대출 16조, 혁신투자 1조 등

신한금융그룹이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4년간 26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신한금융은 7일 오전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 실행력 강화를 위해 ‘그룹 CEO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회장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신한 네오 프로젝트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그룹 CEO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조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범 국가적 사업이자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라며 “이를 선점하는 것이 신한에게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의 뉴딜인 신한 네오 프로젝트의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그룹사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금융그룹은 7일 오전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한 ‘그룹 CEO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한금융지주 본점 회의실에서 조 회장이 그룹사 CEO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신(新)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뉴딜정책으로 3대 핵심방향은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성장생태계 조성 등이다.

먼저 신한금융은 뉴딜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4년간 약 26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 대출

이 16조원이며 ▲혁신투자 1조원 ▲녹색금융 9조원-대출 5조원 ▲투자 4조원 등이다.

또 민간자금을 펀드형태로 만들어 신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 공급 방식 및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신한은행은 유망 기술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TCB)·지식재산권(IP)·동산담보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신한금융이 만든 그룹의 사회

적 가치 측정체계인 ‘신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신한SVMF)’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뉴딜 관련 특화 상품도 만들어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바이오·첨단소재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체 리서치 역량을 활용한 뉴딜 관련 산업·기업군(혁신기업, 에너지 기업 등) 분석을 강화하고, 무형자산(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평가를 보다 정교화해 뉴딜 관련 투자자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K-뉴딜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새롭게 도입 예정인 ‘K-뉴딜지수’에 연계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헬스케어 플랫폼을 런칭하는 등 그룹 헬스케어 사업 협업체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사업 등), 스마트 산단(폐기물 처리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투자도 더 확대한다.

신한캐피탈은 작년 4월 신설한 벤처

투자부를 중심으로 뉴딜 관련 신성장산업 투자 체계를 고도화해 뉴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신한BNPP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한국판 뉴딜 펀드 관련 TF를 가동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GIB사업부문은 데이터센터, 노후학교 리모델링, 스마트시티,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선점 및 투자를 위해 부문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 디지털금융 선도를 위해서는 자체 디지털 가속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데이터거래소 활성화에 앞장선다. 현재 신한카드는 데이터 마켓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데이터거래소 거래실적 1위(128건, 전체 거래 건수 중 32%)를 기록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 해외금융기관 대상 데이터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각 그룹사별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AI 기반 지능형 상담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한카드 역시 음성 AI 플랫폼을 활용한 AI 상담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저축銀 상반기 순익 6840억... 연체율 하락

당기순익 전년비 864억 증가
이자이익 2651억 급증 영향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등은 늘었지만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억원(14.5%) 증가했다.

비이자순실과 대손충당금전입액이 각각 794억원, 461억원 늘었지만 이자이익이 2651억원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확대됐다.

총자산은 8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4000억원(7%) 증가했다.

총대출은 4조3000억원(6.6%) 늘어난 69조3000억원이다. 가계대출이 27조8000억원으로 신용대출 위주로 1조7000억원(6.5%), 기업대출이 39조2000억원으로 법인대출 위주로 2조원(5.3%)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68억원(6.3%)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양호하지만 차주별로는 차별화됐다.

6월 말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하면 0.4% 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4%로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이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4.0%로 전년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4.5%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하면 0.5%포인트 하락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7.7%다. 지난해 말 대비 5.3%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대비 100% 이상 적립한 상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86%로 지난해 말 대비 0.03%포인트 개선됐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기보와 中 女신지원 확대

신한 클린플러스 보증대출
대출 자금 사용 투명성 높여

신한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신한 클린플러스 보증대출’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여신지원 확대를 위해 ‘클린플러스 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신한 클린플러스 보증대출’은 대출금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사전등록 및 검증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기존 ‘B2B전자결제’에서는 물품 구입대금으로 자금용도를 한정했지만 이



번 상품은 물품 구입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차료 등도 지급 가능해 자금용도가 대폭 확대됐다. 최초 대출약정 이후로는 비대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해 운영자금 집행의 편의성이 증대됐다. /안상미 기자

SC제일銀 “일정금액 유지시 상품권 드려요”

‘금상첨화 시즌2’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수시입출금통장인 ‘SC제일마이썸통장’에 신규 가입 후 3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유지하면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주는 ‘금상첨화 시즌2’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3개월 간 매월 평잔을 10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상품권 1만 원권을 받는다. ▲3000만원 이상이면 3만 원권 ▲5000만원 이상이면 5만 원권 ▲1억원 이상이면 8만 원권 ▲3억원 이상이면 25만 원권 ▲5억원 이상이면 40만 원권 ▲10



억원 이상이면 80만 원권을 각각 받는다.

기존 거래고객 중에서도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총 예금(입출금, 예·적금)의 8월 말일 잔액 및 평잔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첫 거래 고객으로 간주된다.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청약저축 가입 경품행사

우리은행은 한가위를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한가위 맞이 청약저축 가입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고객 중 2000명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한 고객도 이벤트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이영석 기자 ysl@

IBK기업銀 호우피해 구례 5일시장에 재능기부

‘IBK희망디자인’ 사업

IBK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중 호우로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7일 ‘IBK희망디자인’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구례 5일시장’에 있는 점포들의 전면간판 제작, 시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구례군, 구례 5일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IBK희망디자인’은 기업은행 디자인경영팀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B.I를 무료로 디자인·제작해주고 골목상권의 환경을 정비

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16년부터 시작해 103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기업은행은 9월 말까지 구례 5일시장 내 157개 점포의 전면간판을 제작·설치해 전반적인 시장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위해 일정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더욱 커진 전통적인 영세상인 밀집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례 5일시장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종원 은행장은 “앞으로도 IBK희망디자인처럼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